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18-3

(공개)

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

2023. 8. 9.

관계부처 합동

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(요약)

I 추진배경 및 현황

※ (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) 사료, 진료, 장묘, 용품,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(Pet Care Industry or Market)
⇒ **펫푸드**, **펫헬스케어**(동물용의약품, 동물의료, 펫보험 등), **펫서비스**(돌봄, 교육·훈련, 장묘 등), **펫테크**(자동화·스마트기기, 디지털헬스케어 등)로 분류

□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육 증가,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시장이 확대·고급화되고,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

*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/개체수(개, 고양이): ('12) 364만/556만 → ('22) 602만/799만

○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 등 전문·규모화*하여 시장지배력 확대

* Mars社 P&G 펫사업부 인수(29억달러, '14), General Mills社 Blue Buffalo 인수(80억달러, '18)

○ 주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 등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신설*, R&D 및 실증인프라* 구축 등 확대

* 미국·EU·일본 :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·유통·수출 추진

** 반려동물 기호 등 실증인프라 사례 : Royal Canin 펫센터(프랑스 미국), Mars 월섬센터(영국)
중국 : 대규모 생산(저장성), 산업(산동성) 및 연구·창업(허난성) 단지 조성

□ 국내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1.6% 수준*, 내수시장 중심** 성장

* 세계/국내시장 규모(억달러) : ('22) 3,720/62 → ('32) 7,762/152 (연평균 7.6%↑/ 9.5%↑)

** 국내시장 유통 펫푸드 브랜드 비중 추정('21) : 국내 47%, 해외 53%

○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*(분류·표시·평가 등), R&D,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

* 예) 사료관리법의 가축용 사료 표시·분류(단미, 배합, 보조) 방식 그대로 활용

◇ **펫휴머니제이션, 기술혁신,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필요**

○ **내수 활성화와 함께,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**

비전

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
 - Everywhere K- 「Pet Care Industry」 -

달성
목표

- ① [시장 확대] 국내시장 규모 : ('22) 8 → ('27) 15조원
- ② [기업 육성] 기업가치 1000억원+ : ('22) 7 → ('27) 15개사
- ③ [수출 강화] 펫푸드 수출액 : ('22) 149 → ('27) 500백만불

전략
및
과제

3대 전략

세부 추진과제

4대
주력산업
육성

- ① [펫푸드]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
- ② [펫헬스케어] 진료비 부담완화,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
- ③ [펫서비스] 인력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
- ④ [펫테크]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

성장
인프라
구축

- ① [혁신거점]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
- ② [벤처]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
- ③ [R&D] 「핵심 기술 + 신분야」 연구개발 확대

해외
수출산업화

- 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
- ②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

추진
체계

-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
-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·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

Ⅲ 세부 추진과제

1. 4대 주력산업 육성

① [펫푸드]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

-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미국,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펫푸드 제도 마련*(‘23.下 방안 마련 → ‘24. 제도화)
 - * 펫푸드 분류체계(주식, 간식, 특수목적식), 영양기준, 표시·광고 기준 등 개편
- 신제품 개발 촉진 위한 원료 안정성 평가 및 원료등록 확대,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(‘23~) 및 원료매입·시설자금 지원(‘23~)
 - * 특화제도, 원료 발굴·평가 등을 구체화하여 「펫푸드산업 육성방안」 마련(‘24)

② [펫헬스케어] 진료비 부담완화,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

- 필수·다빈도 진료항목 부가가치세 면제*(‘23.10.1),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(‘24, 20개 이상)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(‘23)
 - * 예방목적 면제(기준) + 치료 목적 등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
 - ** 부가세 면세 효과 체감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게시, 진료비 조사분석 등 추진
- 「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*」 발표(‘23.10) 및 비대면 진료 실증(‘23~‘25)
 - * 의료서비스 전문화, 진료 선택권 보장,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 등 과제 발굴·검토
- 동물병원·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판매·청구 보험 방식 도입·확산, 신규 보험상품 개발(‘23.下~, 금융위·농식품부)

③ [펫서비스]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

- 기질평가제도·행동지도사 도입(‘24.4),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(‘24)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·의료 인력 기반 확충
-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(2개소) 및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(상품개발·판촉·정보제공 등) 등 추진(‘23~, 문체부)
- 동물장례시설 입지 제한 완화(‘23), 장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*(‘24) 및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(‘22~‘24, 2개 지역)
 - * 동물장묘업(‘22년, 68개) 등에 대한 정보(지역, 가격, 서비스 등) 통합 제공

④ [펫테크]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

-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·육성* 및 쉐 주기 종합지원**('24~)
 - *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 지정으로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자금 지원(280백만원, 기업당)
 - ** 창업 사업화 자금,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, 판로 확대, 네트워킹 지원 등
- 동물등록 데이터(지역·나이 등) 공개('23.下) 및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·공유 확대('24~, 과기부)

2. 성장 인프라 구축

① [혁신거점]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

- 제품·서비스의 기호성·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을 활용한 실증인프라 「(가칭)One-Welfare Valley」* 조성
 - *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, 펫헬스케어 등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기호성·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⇒ 고부가·신제품 개발 촉진

② [벤처]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

- 특수 자펀드,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* 확대('24~)
 - * 특수 자펀드 신규 조성('24, 100억원), 펫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기술창업지원자금 확대
- 클라우드펀딩, 기술평가 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('23~)

③ [R&D] 「핵심 기술 + 신분야」 연구개발 확대

- 현장 수요*가 높은 신규 R&D 프로젝트 지원 확대('23~)
 - * 질병 진단 바이오마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, 암 조기진단 인공지능 모델 등
- 중장기 연구과제*에 대한 투자 로드맵 마련(예비타당성조사 병행)
 - * 시스템 생물학, 줄기세포, 바이오센서, 바이오소재, 로봇틱스 등 수요 높은 연구개발 분야

3. 해외 수출산업화

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

- 수출바우처 확대('23, 중기부) 및 유망시장(베트남 등) 조사, 전시·박람회*,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
 - * 「2023 대한민국식품대전」에 K-펫푸드관 별도 설치·홍보('23.11), 아시아 수의사대회('24, 대전)를 활용한 펫헬스케어 제품·서비스 수출 홍보 등
-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(의약품 등 안전·유효성 보장 관리기준) 인증제도 신설('23.下) 및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('23)

②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

-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('23.下)하여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제공 및 민간 중심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
- 펫푸드 수출검역위생조건 의정서(예, 중국) 합의 노력 지속('23)

4. 추진 체계

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

- 종합적·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·개정 추진('24~)
 - * 「(가칭)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」 제정 등
- 기존 시행 중*인 규제샌드박스 효과성 분석 및 제도화 추진('23~)
 - * 펫푸드 즉석 조리·판매,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, AI 기반 비문 활용 동물 등록,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및 AI 기반 비대면 진료 등

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·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

-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, 동물등록 확대, 한국표준산업·직업분류 개정('24, 통계청)*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
 - * 산업분류 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, 직업분류 내 동물병원 수의사·동물보건사 신설 등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글로벌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동향	2
III. 국내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동향	4
1. 시장 상황	4
2. 그간 정책 지원 평가	5
IV. 국내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육성 시사점 ..	6
V. 비전 및 전략	8
VI. 세부 추진계획	9
1. 4대 주력산업 육성	9
2. 성장 인프라 구축	17
3. 해외 수출산업화	21
VII. 추진 체계	23

I. 추진배경

□ 반려동물 전용 제품·서비스가 확대·고급화되며 신산업으로 부각

- 1인 가구 증가, 고령화*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**,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반려동물 제품·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성장
 - * 1인 가구 수/고령인구 비율 : ('17) 561만 가구/13.8% → ('21) 716만 가구/16.6%
 - **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(추정) : ('12) 364만(17.9%) → ('22) 602만(25.4%)
- ICT·BT 등이 반려동물 제품과 융복합되며 산업 규모가 커지고, 고용 유발효과*가 높은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부각
 - * 고용규모('21년, 고용부) : '19년 3.1만명 → '25년 4.6만명, 연평균 6.4% 증가

□ 글로벌 시장 급성장 및 세분화, 국가 여건에 따라 성장 방식 다름

- 글로벌 연관산업 규모는 연평균 7.6%('22~'32년) 수준으로 성장, 펫테크*, 펫헬스케어**와 같은 새로운 시장 출현·확대
 - * IoT, AI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관련 산업 / ** 질병 치료, 예방, 건강관리 등 관련 산업
- 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 기반으로 산업을 키우고, 기술 역량 및 생산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성장 견인
 - * (미국·EU) 선도기업 중심 R&D, 투자 확대 / (중국 등)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

□ 우리나라는 분류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등 산업 육성 시작 단계

- 그간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정책·지원은 부재하였으나, 국정과제* 이행, 전담 조직 신설**로 육성기반 마련 시작
 - * 국정과제 48-7(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)
 - **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(국 단위) 신설('22.12월)
- 다만, 시장·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미비하고,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부재 등으로 체계적 육성에 한계

☞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**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** 제시

II. 글로벌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동향

□ (전체) '22년 3,720억 달러, 연평균 7.6% 성장 전망

- '22년에서 '32년까지 연평균 약 7.6% 성장 추정

* 시장규모 전망치(서울대, '23년) : ('22) 3,720억 달러 → ('32) 7,762억 달러

-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*, 투자 등으로 전문화·규모화 하고, 시장지배력 확대

* General Mills社 Blue Buffalo 인수 (80억불, '18), Mars社 P&G 펫사업부 인수(29억불, '14) 등



출처: Global Market Insights(이하: GMI)

- 새로운 기술·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신분야(펫테크 등) 투자 규모* 증가

* 펫테크 분야 투자 규모 중 Series A 이상 글로벌 투자 비율(무역협회) : ('16) 10% → ('21) 49%

□ (분야) 펫헬스케어·펫푸드 비중 높음, 펫테크 등 고성장

- 펫헬스케어(48.8%, 1,811억 달러), 펫푸드(32.8%, 1,233), 펫서비스(16.8%, 625), 펫테크(1.3%, 50) 순으로 글로벌 시장 구성('22)

- 디지털헬스케어, 스마트기기 등 펫테크 성장률('22~'32, 연평균 12.7%↑)은 분야별 시장 성장률*을 크게 상회

* '22~'32년 CAGR(서울대, '23) : 펫테크(12.7), 펫서비스(9.1), 펫헬스케어(7.7), 펫푸드(6.1)

- 시장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유통업체(Petco 등) 등장, 아마존, Chewy 양강구도 속에 온라인 펫리테일 산업 급성장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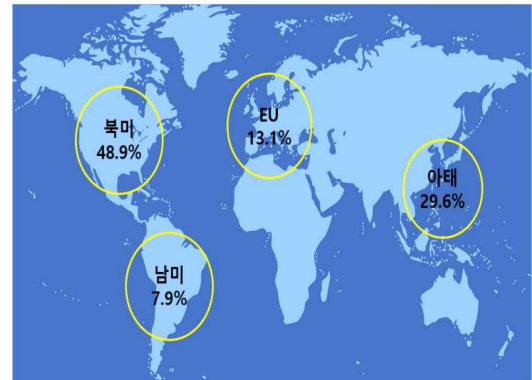
* 미국의 펫리테일 온라인 점유율(Packaged Facts): ('14) 4% → ('20) 27%

- 펫보험은 '32년 453억불('22~'32, 연평균 16.7%)로 성장 추정

* 국가별 펫보험 가입율: 스웨덴 40%('16), 영국 20%('15), 일본 8%('18), 미국 10%('17) 등

□ (지역) 북미지역이 주도, 아시아·중남미권 신흥시장 부상

- 북미(48.9%), 아태(29.6%), 유럽(13.1%), 남미(7.9%) 순으로 시장 점유(’22)
- 주요 60개국 반려동물 개체수는 ’16년 16.5억 마리에서 ’26년 19.7억마리로 증가 전망(유로모니터, ’22년)
- * 국가별 반려동물 개체수: 미국 > 브라질 > 중국



- 아태·남미권 국가는 고성장을*을 보이며 신흥시장으로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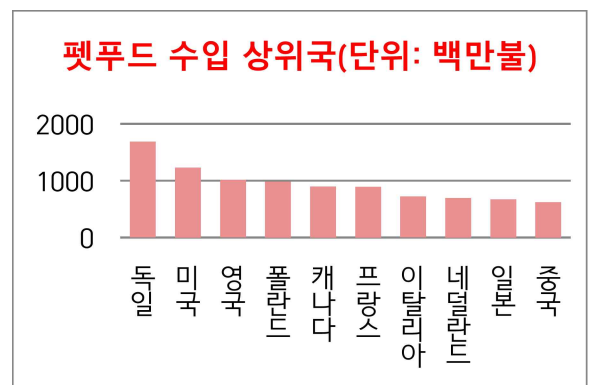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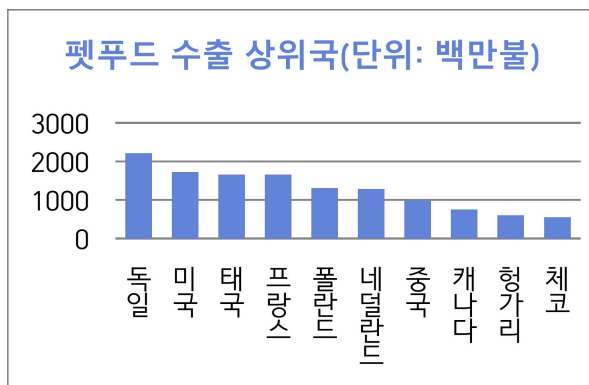
* 신흥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(’23~’32년, GMI) : 중국 13.8%, 필리핀 9.1% 브라질 8%

< 권역별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(출처 GMI) >

구분	2022년	2027년	2032년	연평균 증가율
북미	1,385	1,815	2,235	4.8
EU	372	457	625	5.5
아태	840	1,360	2,248	10.4
남미	225	308	454	7.4
중동·아프리카	12	13	15	2.5

□ (수출입) 연관산업 성장에 따라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

- 펫푸드 교역량은 ’16년 202억불에서 ’20년 343억불로 연평균 14.2% 증가



- 중국은 對미국 펫용품(장난감, 고양이용 모래 등) 1위 수출국

* 對미국 펫용품 주요 수출국(’17~’21년, 장난감 기준) : 중국, 캐나다, 베트남, 호주 순

Ⅲ. 국내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동향

1 시장 상황

□ (전체) 양육 가구 증가 등과 함께 국내시장 약 8조원('22) 규모로 성장

-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양육 마릿수 증가 추세*
* 반려동물(개, 고양이)/양육가구 수(추정) : ('12) 556만마리/364만 가구 → ('22) 799/602만
- 국내시장 규모*는 8조원('22)으로 세계시장에서 작은 수준(1.6%),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펫푸드는 수입의존도**가 높음
* 국내시장 규모 전망('23, 서울대) : ('22) 약 8조원 → ('32) 약 20조원, 연평균 9.5%↑
** 국내 유통되는 펫푸드 비중('21년, 브랜드 기준) : 국내 47%, 해외 53%

□ (분야) 펫푸드·펫헬스케어는 높은 비중, 펫테크 등 수요 확대

- 펫테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, 규모가 큰 펫헬스케어, 펫푸드 시장도 연 11%, 6%대 성장 추정
* '22년 국내시장 규모(서울대, '23) : 펫헬스케어(동물의료 포함) 2.6조원, 펫푸드 1.8조원, 펫서비스 3.5조원(테마파크, 운송 서비스, 반려동물 여행 서비스 등 포함), 펫테크 1천억원

□ (기업) 대기업 시장 참여 시작, 기술력 기반 스타트업 성장

- 대·중견기업은 M&A, 직·간접 투자, 계열화 형태로 시장 참여
* 대기업 A社가 인수투자 등으로 산업 전반에 참여 / 중견업체 B社 인수합병('18)으로 규모전문화
- 선도 스타트업은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투자 유치(시리즈A 등)
* 펫헬스케어 분야 C社는 국내뿐만 아니라, 해외 벤처캐피탈에서 200억원대 투자유치

□ (수출입) 펫푸드 수출 규모 확대, 펫테크 등 융복합 제품 선전

- 품질 제고, 한류 확산 등으로 펫푸드 수출 확대('16: 13백만\$ → '22: 149)
* 다만, 펫푸드 수입액도 늘어 무역수지 적자도 '22년 198백만불로 확대
-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첨단 펫테크 제품 수요 확대로 수출 확대 중
* (사례) 국내 스마트 반려동물 화장실 제조업체가 미국, 일본 등 36개국에 수출

2 그간 정책 지원 평가

□ (제도) 반려동물 특성을 감안한 제도 부재, 제도개선 검토 시작

- 펫푸드에 대한 안정성, 기능성, 영양기준 등 개선 요구가 높으나, 기존의 가축용 사료 법체계(사료관리법)로 대응
 - * 예) (사료 분류) 가축용 사료의 분류(단미, 배합, 보조)방식을 그대로 활용
- 장묘업, 운송, 식당 등 신수요 부분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중

□ (투자·벤처) 기반 투자가 부족하고, 일부 벤처·수출 지원 추진 중

- 산업 육성 초기 단계로 제품 인증, 데이터 수집·활용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상품화 촉진 등을 위한 기반 투자 부재
 - * 기존의 벤처·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 중이나, 체계적 지원에 한계
- 기업들은 단기간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 실증, 검·인증 등을 집적화한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의견(현장간담회)

□ (R&D) 정부투자 규모가 작고, 펫푸드·의료 등 일부에 편중

- 최근 3년간('17~'19년) 정부는 224억원(240개 과제) R&D 투자
 - * 펫푸드, 의료·질병 중심 정부투자 집중, 펫테크 등 신규분야 미흡
- 정책 R&D는 기업수요와 동떨어진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존재
 - * (예시) 기능성 사료(다이어트 등), 처방식 사료(피부병 등)에 대한 기업 수요 미충족

□ (인력) 국가자격 신설 등이 의료·훈련 분야에 집중

- 보건·훈련 분야 국가 자격제도 신설* 등 서비스 분야 신규제도 도입
 - * 동물보건사 자격제도 도입('22년), 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('24.4월)
- 기술·생산, 연구개발 분야 산업인력 수요가 높으나, 인재 양성 부족
 - 대학*·대학원 등에 의료·훈련 등 특정 분야 학과·과정에 집중
 - * 펫토타케어과 등 총 42개 대학 보건 관련 학과 개설(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 회원 기준, '23년)
 - ** 반려동물관리과 등 행동지도사 관련 학과 총 56개(한국애견연맹, '22년)

IV. 국내 「반려동물 연관산업」 육성 시사점

□ 시장 흐름 반영 및 동물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산업 체질 개선

- 펫휴머니제이션*(Pet-Humanization), 기술혁신,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 요구

*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 등 사람과 같이 대하는 사회·문화적 현상

※ **트렌드 변화 요인**(출처: 무역협회 등) : ▶동물 지위 상승, ▶MZ 세대 부상, ▶인구구조 변화, ▶근무형태 변화 ▶AI·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, ▶반려동물 수명 증가, ▶반려묘 개체수 증가

- 동물복지 강화는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요인으로 평가
 - 동물복지 선진국(북미, EU) 사례와 같이 수준 높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

□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적·통계 기반 마련

- 가축·사람 대상의 기존 법령을 활용하거나,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의 부재로 연관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 개선 요구

분야	적용법률	문제점
펫푸드	사료관리법	▶가축용 사료 분류·표시기준, 반려동물 기호성·기능성 미반영 ▶영양학 관점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 미비
펫테크 (헬스케어)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	▶반려동물 용품에 특화된 안전관리·인증체계 미비
동물용의약품	약사법, 의료기기법	▶가축용 동물용의약품과 반려동물 동물용의약품(외약외품 포함) 별도 구분이 없어 산업 육성에 한계

- 다(多)부처가 관련되는 산업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 육성·지원을 할 수 있는 범정부 협업체계 필요

- 업계 의견수렴, 통계관리 등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*도 필요

*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협회(예, 식품산업협회) 등이 부재한 상황

- 체계적인 통계·데이터*를 수집·공유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확보

* 분야별 시장 규모 통계, 산업 실태, 생활데이터, 전국 단위 동물 개체수 현황 등

□ 「연구-실증-상품화」를 위한 집적화된 거점 인프라 구축

- 반려동물 기호에 기반한 제품개발 연구, 데이터 수집·공유, 실증 등 집적화된 거점시설 구축 필요

※ 반려동물 기호 등 실증 해외 인프라 사례: Royal Canin 펫센터(프랑스, 미국), Mars 월섬연구센터(영국), Nestle Purina PTC, Hills 글로벌 반려동물 영양센터 등

- 상품화·산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·투자 활성화 필요
- * 업계 수요,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R&D 투자 지원 필요

□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수출산업화

- 소비자 부담완화, 전략 시장 성장단계*에 맞춘 첨단·고부가가치 신시장(펫테크 등) 확대, 친반려 문화확산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

* mass(대중 시장, 現수준) → mass prestige(대중+명품시장) → premium(고급시장)

- 급격한 시장 확대에 글로벌 각축전이 예상되는 중국·인도·베트남 등을 전략 시장화하여, 공격적인 수출 확대 전략 수립
- 수출 주력산업(펫푸드·펫테크 등)에 대해서는 관계부처·기관 및 민간 협조체계를 활용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지원
- * 시장개척 단계부터 현지 정착단계까지 수출지원체계 구축

□ 시장 수요가 큰 서비스 전문인력 및 연구·기술 인력 양성

- 반려동물 훈련, 의료·보건 등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 자격제 신설·개선 등 추진

-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·실험 인력, 첨단 기술개발 인력 등을 포함한 연관산업 전문인력 적극 양성 필요

* (예) 업계는 동물용 의약품, 기능성 펫푸드 등 임상실험 수의사가 전무하다는 지적

V. 비전 및 전략

비전

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
- Everywhere K- 「Pet Care Industry」 -

달성 목표

- ① [시장 확대] 국내시장 규모 : ('22) 8 → ('27) 15조원
- ② [기업 육성] 기업가치 1000억원+ : ('22) 7 → ('27) 15개사
- ③ [수출 강화] 펫푸드 수출액 : ('22) 149 → ('27) 500백만불

전략 및 과제

3대 전략

세부 추진과제

4대 주력산업 육성

- ① [펫푸드]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
- ② [펫헬스케어] 진료비 부담완화,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
- ③ [펫서비스]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
- ④ [펫테크]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

성장 인프라 구축

- ① [혁신거점]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
- ② [벤처]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
- ③ [R&D] 「핵심 기술 + 신분야」 연구개발 확대

해외 수출산업화

- 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
- ②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

추진 체계

-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
-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·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

VI. 세부 추진계획

1 4대 주력산업 육성

1 [펫푸드]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

◆ (현황 및 여건) 제도적으로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펫푸드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, 원료의 등록·확보 등 지원이 부족

◆ (목표)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제도로 개편하고, 생산원료 다양화·국산화

※ 펫푸드 국내시장 규모 : ('22) 1.8조원 → ('27) 3.6 → ('32) 10

□ (분류체계)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

- 선진국의 펫푸드 분류체계 조사·분석(연구, ~'23.下) 토대로 개선방안*을 마련('23)하고, 사료관리법 개정 등 추진('24)

* (현재) 단미사료, 배합사료, 보조사료 → (개선안) 주식, 간식, 특수목적식

※ (해외사례) AAFCO(미국사료관리협회, 1909년 창립)

- ▶ AAFCO는 펫푸드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(주식, 간식, 특수목적식)하며, 미국 정부는 AAFCO가 제안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제도화
- ▶ 다만, 우리나라 펫푸드 분류체계는 원료 중심으로 분류하는 가축용 사료 분류체계(단미, 배합, 보조)와 별도 구분하지 않아, 표시기준, 영양학 등 발전에 한계

□ (표시) 소비자 알권리 강화, 정보 혼선 방지 등을 위한 표시기준 개선

- 의무 표시사항 개선(이해하기 쉬운 원재료로 명칭 개정 등), 표시정보 강화*('24.上, 사료관리법 고시 개정), 허위·과장광고 점검 등 추진('23.下)

* 소비자 중요 인식 표시사항(원료 함량, 원산지, 급여 방법 등) 중심으로 정보 강화

< 원재료 표시사항 비교(예시) >

[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 예시]

[이해가 쉬운 원재료 예시]

계육분, 계육, 타피오카전분, 치킨오일, 렌틸콩, 병아리 완두콩, 바나나분말, 참치분말, 식물성글리세린, 인산칼륨, 완두단백, 맥주효모, 가수분해참치분말, 푸알산, 비타네랄합제, 프락토올리고당, 토코메콜, 타우린, 프로피	생육닭고기(42%), 건조토끼고기(22%), 건조오리(6%), 닭지방(5%), 호박, 병아리콩, 콩, 닭간(3%), 연어오일(3%), 사과, 당근, 아마씨, 가수분해계껍질, 연골추출물, 맥주효모, 치
---	---

※ (현재) 계육분, 육골분, 어유 등 → (개정안) 닭고기 분말, 고기뼈 분말, 생선기름 등

□ (영양) 반려동물 식생활을 반영한 균형 잡힌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

*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렵고, 오로지 반려인의 선택으로 급여 되기에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'완전식품' 개념이 중요(한국수의영양학회, '21)

- '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' 발족('23.10월) 및 해외사례 조사·검토(연구, '24.上) 후,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·적용('24)

※ (해외사례) FEDIAF(유럽펫푸드산업연합) : EU 내 펫푸드 관련 제도 신설 기관

- ▶ 유럽연합과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노르웨이, 러시아, 세르비아, 스위스의 국가 반려동물 식품산업 협회를 대표하며, 유럽 내 약 150개 반려동물 식품 기업을 대변
- ▶ FEDIAF는 활동성 보통인 성견·성묘, 14주령 이하 자견·자묘 등 성장단계별 영양 가이드라인 제시

□ (원료등록)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발굴·연구 및 등록(공정 설정)

- 기능성 펫푸드 등 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가 큰 원료 조사 후, 안전성 등을 거쳐 활용 가능 원료로 설정 추진('24~)

※ (예시) 「사료관리법」 상 미등록 생산원료 중 기업 수요가 높은 원료

- ▶ (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티드) 체중 증가, 혈중 비타민 B3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며, 일본 후생성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능성·안전성을 인정
- ▶ (락토바실러스 뮤코제) 천연항생물질 생성, 유해미생물 억제, 미네랄 흡수 촉진 등 효과가 있으며, 유럽 식품안전국에 생물학적 제제로 등록('19)

□ (원료확보) 동물성 단백질 원료 공급망 확대 및 원료매입 등 지원

- 계란 등 검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열처리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열처리 동등성 처리방법 연구('23.上~) 및 적용 검토

* 사료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습열멸균(121°C 15~20분 또는 115°C 35분), 건열멸균(160~170°C에서 1~2시간) 등 방법으로 처리 필요

- 안정적 원료확보 및 수출국 위생조건(시설 등) 등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산 원료매입·시설자금 지원('23~)

* 지원조건 : 용자 80%, 자부담 20%, (원료) 2년, 금리 3% / (시설) 3년 거치 7년 상환, 3%

□ (약용 소재) 반려동물 약용 소재 활용 펫푸드 산업화 지원

- 약용 소재 활용 펫푸드에 대한 효능분석, 시제품 생산시설·장비 등을 위한 시설·장비 구축 지원* 검토

*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시 반영

2 [펫헬스케어] 진료비 부담완화,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

◆ (현황 및 여건)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 확대 중이나, **의료비 부담***, **낮은 펫보험 가입율**, **정보 비대칭성 문제**** 등이 문제로 제기

*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 6만원('22,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)

** ①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, ②과잉진료 발생 우려, ③진료비 과다청구 등

◆ (대응방향) **동물 진료(의료) 부담 경감**, **투명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**

※ 부가세 면세 : (~'22) 질병 예방 목적 등 → ('23)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세 확대

□ (진료비 부담완화) 필수·보편적인 동물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

○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비 등으로 제한적이나,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로 대폭 확대('23.10.1 시행)

* (기존) **질병 예방 목적** 항목(예방접종, 심장사상충약, 중성화수술, 병리학적 검사 등) → (개선) **예방 목적 및 치료 목적** 등의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

- **보편적 진료행위**(진찰·투약·검사 등)가 포함되도록 하고(분류체계 개편), **분야별**(내과·피부과, 외과 등) **질병이 폭넓게 포함되도록** 추진

* **분류체계**: (현행) ①예방접종, ②약, ③수술, ④검사 등 4가지 진료용역(예방 목적에 한정) → (개편) ①진찰입원, ②접종투약, ③검사, ④증상에 따른 처치, ⑤질병 예방 및 치료 등 5가지

< 부가세 면세 대상 100여개 진료 항목(안) >

분류체계(안)	부가세 면세 대상 추가항목(안) ※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
진찰 및 입원	▶ 진찰, 입원관리
접종 및 투약	▶ 예방접종, 조제/투약
검사	▶ 영상진단의학적 검사(X-ray, 초음파, CT, MRI 등)
	▶ 계통별 기능검사(순환기계, 신경계, 안과계, 근골격계 등)
	▶ 내시경검사(내시경, 검이경 등)
증상에 따른 처치	▶ 구토, 설사, 기침, 발작, 황달, 파행,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
질병의 예방 및 치료	▶ (내과/피부과) 외이염, 개 아토피성 피부염, 위장염, 식이 알러지, 기관지염 등
	▶ (안과) 결막염, 유루증,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, 각막궤양, 백내장, 건성각결막염 등
	▶ (외과) 무릎뼈 안쪽 탈구,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, 유선 종양, 추간판 질환 등
	▶ (응급중환자의학과) 위장관 출혈(혈토, 혈변), 심인성 폐수종, 빈혈, 백혈구 이상 등
	▶ (치과) 구내염, 치은염,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, 치근단농양 등

○ 부가세 면세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 게시, 진료비 조사·분석, 현장 홍보·계도 등 협의·추진('23.10월)

□ (펫보험 활성화) 제휴 및 간편 청구 시스템 도입·확산, 신규상품 개발

< 국내 펫보험 시장 현황(출처: 손해보험협회) >

구 분	2015	2018	2019	2020	2021	2022
계약건수 (건)	1,826	7,005	24,199	35,415	51,727	71,896
연간 보험료 (백만원)	731	1,120	8,721	15,392	21,333	28,754

* 펫보험 판매 보험사(11개사) / '22년 펫보험 가입률 : 전체 반려동물(개·고양이) 수 대비 0.89%

** 개·고양이 대상 입원·통원·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(연간 보험료 50만원 수준) 판매 중

< 펫보험 해외시장 동향(출처: 보험연구원 등) >

구 분	영국('15)	미국('17)	일본('18)	스웨덴('16)
보험시장 규모	약 1.5조 원	약 1조 원	약 7.1천억 원	약 4천억 원
보험가입률(%)	약 25%	약 10%	약 9%	약 40%

-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, 펫숍 등으로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,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 편의·접근성 확대('24)

※ (해외사례) Trupanion社 동물병원과의 제휴('20년, 11,517개)를 통해 청구 전산화 등 추진 중이며, 제휴 동물병원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
- 기존의 획일적인 보장(보상 한도, 횟수) 상품을 반려동물 발달단계,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하고, 합리적인 보험료의 신규상품 개발(금융위)

* 진료 표준화 항목 확대, 과잉 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 상품개발

** 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 질환(암·심장수술 등)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

※ (해외사례) Anicom社(일본)의 동물건보 패밀리상품(월 3천엔 내외 납부)

▶ 보장비율 50~70%, 최고보장금액 없음, 통원(연 20회, 1만엔), 입원(연20회, 1만엔), 수술(연2회, 10만엔), 배상책임보험(특약) 등으로 넓은 보장범위로 많은 반려인이 이용 중

- ※ 금융위·농식품부 공동 「펫보험 활성화방안」 발표('23.9월) 및 양 부처 간 「펫보험 활성화 MoU」 체결('23.下)

□ (진료 투명성 제고) **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조사·공개·사전게시**

○ (진료 표준화)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* 조기 추진 및 게시

* 동물병원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대해 질병명, 진료절차 등을 표준화
→ 진료비 비교 기반 마련 및 진료비 편차 완화, 합리적 진료 행위 유도 추진

- 당초 '24년까지였던 필수·다빈도 100여개*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를
'23년까지 완료 후, 표준 진료 절차 고시('24.1)

* 중성화수술, 외이염, 결막염, 위장관출혈, 무릎뼈 안쪽탈구 등 100여개

○ (진료비 조사·공개 등)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평균 진료비 등을 공개하고 동물병원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

- 동물병원 게시 진료비*('23.1월 시행) 현황 조사·공개('23.8월)

* ①진찰, ②입원, ③검사(X-ray 전혈구 검사), ④예방접종(개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)

**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약 1,300개소(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의무화)

※ (미국사례) 미국 동물병원협회(AAHA)에서 2년마다 약 405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동향을 조사하여 통계집(Veterinary Fee Reference) 형태로 발간

-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('23: 4개 → '24: 20개 이상, 누적) 및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 추진

※ (영국사례) 치료 대안, 예후 등 진료 등에 발생가능한 비용을 진료 전에 고시하는 「사전고지제」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의약품 가격, 구매경로 등도 추가 고지

□ (의료서비스 개선) 「**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**」 수립 및 **비대면 서비스 검토**

○ (대책) 동물의료 수요 확대 및 고급화에 대응한 의료서비스 전문화,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「**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**」 발표('23.10월)

- 동물병원 전문과목(치과 등) 및 2차 병원체계 도입,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등 과제 발굴(동물의료개선 TF*, '23.3~)

* 동물의료계(수의사회, 동물병원협회), 수의학계, 소비자단체, 동물보호단체, 보험업계 등 참여

- 통계·현황 조사 및 해외사례 분석 등 동물의료 개선 연구 병행

○ (비대면 상담)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상담서비스 검증

- 반려동물의 사진·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한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 실증 특례 추진('23~'25) 후, 제도 개선 검토

< AI 기반 비대면 상담서비스 실증 특례 개요('23~'25) >

- ▶ AI 기반 소프트웨어(App)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비대면으로 모니터링(진료 및 상담)하는 서비스

* 진료 부분은 '안구질환'에 한정, 상담은 모든 질병 허용



□ (동물용의약품 등) 신약 효능·안전성 및 임상을 지원하는 거점시설 구축

- 동물용 의약품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능·안전성 평가, 신약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거점 조성(2개소, ~'25년)

*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



▶ 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시험 전문 GLP-GCP 시험기관(전북 익산, '23 완공)



▶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기술을 상용화 시제품 제조 및 제형 개발 시설(전북 익산, '25 완공)

- 반려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그린바이오로직스 기술 기반 생산시설 구축('23~'25, 경북 포항)

* 식물 기반 생산 플랫폼 활용하여 반려동물 등 관련 단백질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



- 동물용의료기기산업 거점(경북 경산)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('23)

* 동물용의료기기 연구개발·상용화 지원 및 생산거점 조성 등을 위한 연구

③ [펫서비스]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

◆ (현황 및 여건) 최근 **훈련·의료·관광·장묘** 등 펫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, 체계적 **자격제도 운영** 등 서비스 품질 개선 요구도 증가

◆ (목표) 국가제도 도입, 서비스 인력 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

□ (훈련) **행동지도사** 국가 자격제 신설 등 **연관산업 훈련·행동 인력 확충**

○ 증가하는 반려동물 **훈련·행동지도** 수요*에 대응한 **전문인력 육성** 및 **국가 자격제도 도입**(’24, 매년 1,500명 추정)

* 행동지도 관련 민간자격(’22, 58개), 행동지도 관련 교육기관(’22, 56개소)

○ **기질평가제도**(’24.4월)*에 앞서, **행동지도를 연계하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지침(안), 기질평가 기준(안) 마련** 등을 위한 **시범사업 추진**(~’23.10월)

* 동물의 건강상태,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**공격성을 판단**하고, 평가 결과 **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**할 수 있는 제도

□ (의료) **동물보건사 제도**(’22년~) 개선 등 **동물의료 인력 지속 확보**

○ **간호·진료보조** 서비스를 제공하는 **동물보건사(국가자격)**를 **확충**하고, **양성기관 지정,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**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(’24)

* (’22~’23, 1·2회차) 합격자 수 3,087명

□ (관광) **반려인, 비반려인, 반려동물 모두 만족하는 동반여행 환경 조성**

○ **반려동물 친화 관광** 추진 **지자체 지원***, **동반 여행 콘텐츠 확충**(상품개발·판촉·정보제공 등 지원)과 함께 **펫티켓 홍보** 등 추진(문체부, ’22~)

* 지자체 대상 사업계획 및 홍보·마케팅 전략 진단 컨설팅 등 지원(’23년 2개 지자체)

□ (장묘) **동물장묘시설 규제 완화** 및 **이동식 장묘서비스 시범 운영**

○ 동물장묘시설(화장, 봉안, 장례) 중 **장례식장에 대한 입지 제한 규정 완화***(’23, 동물보호법 개정) 및 **장묘업 통합정보시스템**** 구축(’24)

* (기존)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→ (변경안) 삭제

** 장묘업(’23년, 68개 업체) 등에 대한 정보(지역, 가격, 서비스 등) 통합 제공

○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**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**(~’24, 2개)

4 [펫테크]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

◆ (현황 및 여건) IT·BT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기업이 창출·성장 중이나, 우리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 부족

◆ (목표) '32년까지 펫테크 시장 규모 5억 달러 달성

□ (집중 육성) 첨단기술 육성 주요 분야로 지정 및 육성

- 인공지능, B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펫테크 분야 등을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*하여 육성('24~, 기업당 280백만원**)

* (현재) 그린바이오, 스마트농업 → (변경) 그린바이오, 스마트농업, 반려동물 신기술산업

** 제품 사업화·공정개선 및 시제품 개발 등 지원, 경영·유통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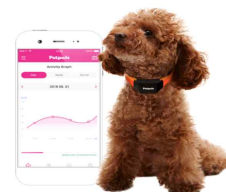
※ CES 등 해외에서 우리 기술은 인정받고 있으며, 특허출원 지속 증가

▶ 반려용품 특허출원(통계청) : '14년 140건 → '18년 465건 (332%↑)

< 펫테크 제품 사례 >



스마트 화장실



AI 감정인식



AI 진단 보조

□ (종합지원) 사업화 자금, 판로 확대 등 전주기 지원 및 제도 개선

-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, 판로 확대 등 관리·지원 및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활용 등 우수기술·기업 홍보('23~)

- 스타트업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의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제도 개선('23.下, 중기부)

* 전문인력 등의 임금 비용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부여

□ (데이터)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 공유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

- 기업이 시장 모델을 분석 및 다각화하도록 동물등록 데이터* 공유('23.下)

* 지역, 견종, 나이, 성별 등 현재 미공개 (동물보호관리시스템: www.animal.go.kr)

- 질병예방·관리, 생체·감정인식 등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·공유 검토(과기부·농식품부)

* AI-HUB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) 내 피부·안구질환 데이터, 반려동물 구분 영상데이터 등 구축된 상황으로, 현장 수요 등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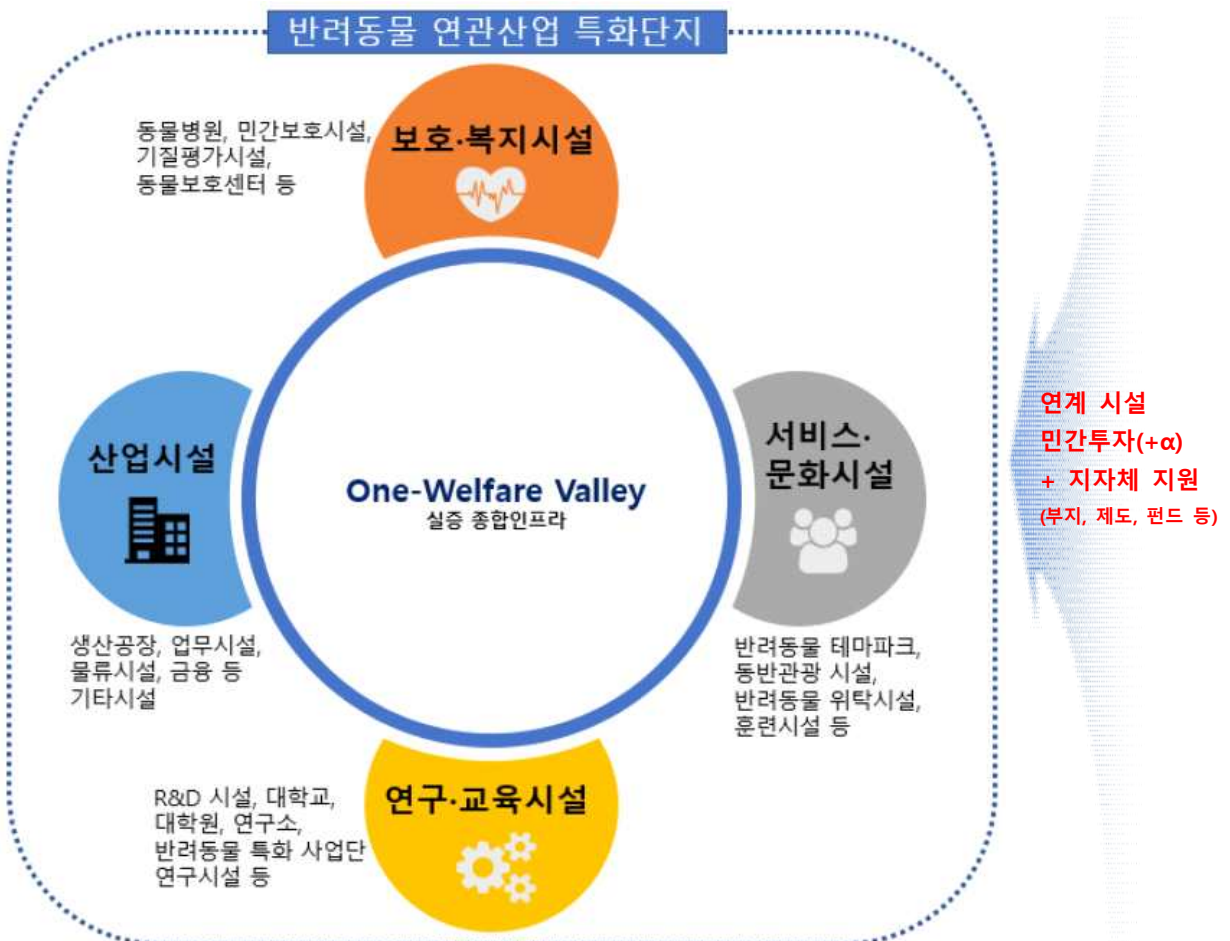
2 성장 인프라 구축

1 [혁신거점]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

- ◆ (현황 및 여건)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호 등을 실증하여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, 우리 기업도 해당 인프라 수요 매우 높음
- ◆ (목표) 실증, 창업 등의 기능을 갖춘 「One-Welfare Valley」 조성

□ (Valley 조성) 세계적인 수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

- 반려동물의 기호 등을 반영하여 제품·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려동물*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One-Welfare** Valley 조성
 - * 동물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, 펫소물리에, 펫인플루언서, 펫얼리어답터 자격을 부여
 - ** One-Welfare 개념 : 동물과 인간의 복지, 환경이 하나로 연결(16, 세계동물보건기구)
- 실증인프라를 매개로 보호·복지시설(동물보호센터, 기질평가시설 등), 산업시설(생산공장, 물류시설 등), 연구·교육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(지자체) 유도



□ (Valley 기능·운영) **고부가·신제품 개발 촉진, 민투 활성화 환경 조성**

- (기능) 잘 훈련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개발 제품에 대한 기호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* 제공 ⇒ 고부가·신제품 개발 촉진

* 실증 요소(기호성·소화율 등)·범위(연령·성별 등) → 실증테스트(1주일~12달) → 데이터 제공 및 보완·실증

< 원웰페어 밸리의 제품 상용화 절차 >



- (구성) 양육·훈련, 실증 및 연구시설·장비 등 지원

① (실증테스트 시설) 실증 전용공간(생활 등), 실증결과 데이터* 확보·분석 등을 위한 실증기관 연구 장비·시설** 구축 및 운영

* 대소변, 수면, 행동 등 실증에 따라 생성되는 신체 데이터 전반 및 제품·서비스 데이터

** 유전자 분석 장비, 바이오센서, 모니터링 등 대소변·영양 분석, 빅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장비

② (양육·수의·훈련 시설) 반려동물 양육·수의 등 생활시설, 실증 대상 표준화(식생활·배변·수면 등) 등을 위한 훈련시설 조성

③ (기업활용 시설)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컨설팅·공용시설(사무실, 연구장비 등) 지원, 기업 R&D 실증센터* 운영 등

* 일정기간(0.5~5년) 실증센터(총 10~15개 연구·분석실 조성)에서 상주하며 중장기 과제 수행 → 벤처·스타트업 일정규모 미만 기업 우대 및 사용료 차등 지원 등 검토

- (운영방안) 부대시설 투·융자, 수익 창출 등 지속가능한 Valley 운영을 위해 민간(기업 등)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검토

* 사업자 선정 시, 부대시설 투·융자계획(민간, 지자체), 사업 운영방안 등 중점 평가

☞ 운영방안은 기본계획 수립, 지자체,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·논의 등을 통해 보완 및 결정

* 운영방안 수립 일정에 맞춰, One-Welfare Valley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연계 시설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병행 추진

2 [벤처]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

◆ (현황 및 여건) 반려동물 관련 벤처 창업 열기가 활성화 중이나,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자금 마련과 투자유치에 난항

◆ (목표) 시장 수요에 맞춰 벤처육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신시장 선점

□ (펀드·용자) 자펀드 신규 조성, 저리용자 자금지원 등 창업 초기자금 마련

-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 자펀드 신규 조성('24, 100억원)
- 펫테크 등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저리용자 자금지원 확대('24)
 - * 기술창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에 펫테크 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확대
- 해외펀드, 정부 정책금융자금 관련 매칭을 위한 우수경영체 발굴, 투자 정보 등 공유 및 지원('2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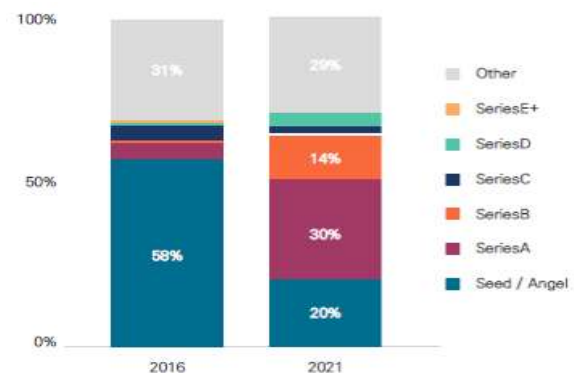
□ (투자유치)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투자 매칭 기회 정례화

- 연관산업 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펀딩*, 기술평가 지원**,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등 지원 확대('23~)
 - * 소액투자자 유치로 초기자금 확보 및 수요 파악(중개수수료, 전문 컨설팅 등 지원)
 - ** 기술가치 평가, 기술력 평가, 우수기술 평가, 소요자금 평가 등 지원
- 맞춤형 1:1 컨설팅, 사업설명회 기회 제공 등 투자유치 기회 확대('24~)
 - *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 지역별 투자지원센터를 활용, 투자유치 전·후 지원사업 추진
- 벤처캐피털, 자산운용사 등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(연 1회)

※ 국내외 투자 동향

- ▶ (국외) Series A 이상 투자 비중 '16년 11% 수준에서 '21년 49%로 증가
- ▶ (국내) '21~'22년간 투자유치 스타트업 60여개社, Series A 이상 42% 수준
 - * 펫푸드, 펫헬스케어, E-커머스,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

< 펫테크 글로벌 투자 비중(출처: CBInsights)>



3 [R&D] 「핵심 기술 + 신분야」 연구개발 확대

◆ (현황 및 여건) 시장 규모에 비해 정부투자 R&D 규모가 작고, 펫푸드 소재, 질병(질병 유발 유전체 등) 등 관련 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 부족

* 국내시장 규모 대비 정부 R&D 투자 비중('23년 기준, 투자 계획 금액 포함) : 반려동물 연관산업 0.5%(400억/8조원), 스마트농업 5%(4천억/8조원), 그린바이오 2.2%(1,184억/5.4조원) 등

◆ (목표) '32년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

□ (단기 프로젝트) 펫테크, 펫헬스케어 분야까지 연구개발 지원 확대

○ 기능성 펫푸드, 맞춤형 의약품·의료기기,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관련된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* 추진('22~'26, 314억)

* 기호성 사료첨가제, 피부질환 치료제, 면역세포 치료제, 혈액 대체제, 뇌질환 진단키트 등 과제

○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현장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 대해 R&D 추진('23~'28)

* 개념→선행→심화 연구로 진행되며, 최종 심화연구까지 지원받는 1과제당 총 약 39.5억원 지원

□ (중장기 기획)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투자 필요 분야 기획

○ 부가가치가 높고 원천기술 확보부터 산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 필요 분야에 대한 로드맵 마련(예타 병행)

* ('23~'24) 예타 필요과제 발굴·기획 → ('25) 예타 신청 → ('26 이후) 연구 수행

○ 시스템 생물학, 줄기세포, 질병 완화, 바이오소재, 영양학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중점 투자

기술 분야	주요 연구개발 과제(안)
펫헬스케어	▶ (시스템 생물학) 신약 영향도 분석 가상 시뮬레이터, 가상 환자 모델링 등
	▶ (줄기세포) 치료 세포 분화, 줄기세포 생산, 면역거부 반응 등 기초연구
	▶ (노화) 임상학적·유전학적 신체나이 기준, 노화 지연 유전정보 등
	▶ (바이오센서) 생물학적 성분 신호 처리 기술(예 진단키트), 경구형 IoT 바이오 캡슐 등
펫테크	▶ (보조 로봇) 로봇틱스 장난감, 훈련·해동 보조 로봇 등
	▶ (모니터링) 활동량, 심박수, 호흡수, 감정 등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포착 등 관련 기술(웨어러블 디바이스, GPS 등)
펫푸드	▶ (질병 완화 등) 아토피 등 질환 맞춤형 처방식, 기호성 사료 첨가제 등
	▶ (영양학) 품종별·연령별 영양소 효용성, 종별·나이별 기초 영양 생리 평가, 기능성 사료 소재,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등
	▶ (바이오소재) 단백질 대체성 원료(곡류 등), 장내 마이크로바이옴, 주원료 국산화 등

3 해외 수출산업화

- ◆ (현황 및 여건) 베트남, 중국 등 신시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, 수출 전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
- ◆ (목표) '32년까지 1,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 20개 육성
※ 천만불 이상 수출기업 수 : ('22) 1개 → ('27) 10 → ('32) 20

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

□ (시장정보) 수출 전략국가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

- 유망시장(베트남, 중국, 호주 등) 국가 대상으로 시장조사*
* 비관세장벽(인허가, 통관 등), 수출 전략(국가별 유망 수출 품목, 사업모델 등) 등
- 대사관과의 협조, 시장개척 요원(aT)을 통해 정보조사 병행

□ (전시·박람회) 바이어 매칭 행사, 전시·박람회 참여기회 확대 등 판로개척

- 「2023 대한민국식품대전」 활용 K-펫푸드관* 별도 신설('23.11월)
* 펫푸드 제품·기술 전시, 바이어 초청 및 국내기업과 매칭, 투자상담회 등 진행
- 펫헬스케어 분야는 아시아 수의사대회(대전, '24)* 등 활용 수출지원
* 수출을 위해 해외 임상 경험자(수의사)의 인증·인식이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
- 제품 홍보,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·전시회 참여 지원

□ (제품·서비스 현지화) 법률 자문, 해외인증, 판매 촉진 등 현지화 지원

- 제품·홈페이지·카탈로그 현지화, 수출 현지 법률 자문 등 지원
- 수출 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수출바우처* 지원('23, 중기부 협업)
*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, 인증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패키지 지원
- EU 등 중심으로 요구가 확대되는 해외규격인증 지원 강화('23, 중기부)
- 현장 수요가 많은 '6대 핵심 인증*' 관련 상시상담·컨설팅 제공
* 미국 FDA(펫푸드 동물약품 등 안전성), 미국 FCC(펫테크 전자파 등 인증), EU CE(제품에 대한안전, 건강, 환경 등 인증), 미국 NRTL(펫테크 안전성 등 인증)

□ (의약품·의료기기) **교육·홍보, 컨설팅, 임상시험** 등 수출 순과정 지원

-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희망 업체가 활용 가능한 GMP* 인증제도 신설('23.下,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** 개정) 및 컨설팅*** 지원

*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 : 의약품 등의 안전성·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

** 수출용 동물용 의료기기 GMP 신설, 동물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관련 정의 등

*** GMP 지정(운영) 전반 및 제조·품질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컨설팅(개소당 50백만원)

-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대상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로 해외 수출정보 제공 및 교육·홍보 지원('23)
-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제품 육성 제품개발, 임상 시험 등 지원('23)

② **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**

□ (수출지원체계) 「**수출지원협의체**」 운영 등 수출통합 지원체계 구축

- 부처별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, 협력과제 발굴, 주기적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관계부처 '수출지원협의체'를 구성·운영('23.下)
- 기업 간 정보 공유, 해외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* 구성 지원
 - * 수출기업(펫푸드, 펫테크 등 포함) 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정례화(반기별)
- 수출기업 리스트(투자·수입 제안서 등) 제작 및 바이어 매칭 자료로 활용하도록 현지 공관, Kotra 무역관에 제공

□ (수출 검역) **對중국 펫푸드 수출 검역 조건 합의** 등 수출 여건 조성

- 수출검역위생조건 의정서 합의 노력 지속('23) 및 후속절차* 추진
 - * 수출작업장 등록을 위한 중국 측 현지실사 대응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
- 기존에 체결된 FTA(RCEP 등) 또는 향후 체결할 FTA, 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수출 진입장벽 해소
 - * 기발효된 FTA 21건(59개국): 한-미, 한-ASEAN, 한-EU, 한-호주 등

VII. 추진 체계

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

□ (특화제도 마련) 가축용 사료와 펫푸드(반려동물 사료) 간 제도적 구분

- 분류체계, 표시기준, 영양관리 및 맞춤형 기준 등 펫푸드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 및 추진방식(사료관리법 분장 등) 구체화('24~)

※ (해외사례: EU) PARNUTs(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)은 특수목적 영양 사료로, 6가지 동물 중에 25가지의 질환에 따른 필수적인 영양학적 특성, 수의사 관리 등의 조항 규정

□ (법률 제정) 「(가칭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」 제정 추진

- 펫푸드 등 관련 기존 법을 우선 개정하고,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종합·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('25~)

*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법률안 제정(안) 마련('24~'25)

< 「(가칭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(안)」 >

- ◆ (체계 구축) 종합계획 수립, 인허가 사항, 준수사항, 점검 등
- ◆ (기반 조성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거점 조성, 육성 거점 내 반려동물 복지 제고 등
- ◆ (인력 양성) 융합형 인력 양성, 융합학부(펫테크, 펫헬스케어 등) 신설, 반려동물 데이터(생활데이터, 임상데이터 등) 활용 코디네이터 양성, 민간 기술전문가 양성
- ◆ (거버넌스·통계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협의회 운영,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체계,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,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
- ◆ (기타) 수출 활성화, 벤처 양성, 투자 지원 확대, 특구 지정 등 규제 특례 등

□ (규제 개선)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

- 기존에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효과성 분석 및 제도화 가능 검토('23~)

※ 반려동물 관련 既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사례

- ▶ 반려동물 특성 등에 따라 펫푸드 즉석 조리·판매 서비스('22~'24)
- ▶ 동물운송업 공급 유연성 확대 등을 위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('23~'25)
- ▶ 소비자 편의성 등 제고를 위해 이동식 화장차량을 활용한 반려동물 화장서비스('22~'24)
- ▶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('23~'25)

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·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

□ (시장조사)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

- 연관산업 분야별 매출액 규모, 인력 현황, 수출입액 규모 등 기업 현황과 국내·외 시장 규모·전망을 포함하여 조사
 - * 분야별 국내 기술 수준, 투자 동향, 해외 정책 등 조사 병행

□ (동물등록) 분양 시 등록의무 확대,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등록률 제고

- 금년 4월부터 판매업자 외 생산업자·수입업자도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분양하도록 의무화
 - * 동물등록 마릿수('21년) : 약 278만 마리(내장형 46.6%, 외장형 52.1%, 인식표 1.3%)
 -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(8~9월) 및 홍보를 통한 등록 유도
- 비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 검토(~'24, 규제샌드박스) 및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속 추진('18~)
 - * 고양이 등록수/참여 지자체 : ('18) 562마리/28개 지자체 → ('22) 약 21,000마리/228

□ (산업분류) 통계 수요 등 반영 산업 별도 분류 및 명칭 변경 검토

-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의 분류체계에서 「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」을 구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(11차) 내 분류('24, 통계청)
 - * (기존) 배합사료 제조업(코드: 10801),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(10802) → (개정안)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, 축산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 등
- '애완동물'이라 표현된 코드 명칭에 대해 '반려동물'로 개정 추진

□ (직업분류)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반영하여 직업분류 개정 검토

- 수의사, 동물보건사, 훈련 등 관련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되도록 한국표준직업분류(8차) 개정 반영('24, 통계청)
 - * 수의사 관련(세분화),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(신설), 동물보건사(신설) 등

참고

과제별 소관 및 추진 일정(안)

※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 변동 가능

추진과제	일정	소관부처
전략 1 : 4대 주력산업 육성		
1 [펫푸드]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		
○ 펫푸드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[신규]	'23~	농식품부
○ 펫푸드 표시기준 개선 및 허위·과장광고 등 점검 [신규]	'23~'24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발족 등 추진 [신규]	'23~'24	농식품부
○ 신제품 개발 촉진 원료 연구 과제화 및 공정 설정 [신규]	'24~	농진청
○ 멸산균 열처리 동등성 처리법 연구 및 검토 [신규]	'23~	농진청
○ 원료매입·시설자금 지원 [강화]	'24~	농식품부
○ 약용작물 소재 활용 등 「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」 연계 [강화]	'25	농식품부
2 [펫헬스케어] 진료비 부담완화,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		
○ 필수·보편적인 동물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[신규]	'23	기재부·농식품부
○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 게시 등 협의·추진 [신규]	'23	농식품부
○ 판매 창구 다양화 및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 접근성 등 확대 [신규]	'24~	금융위·농식품부
○ 기존 보험상품 개선 및 신규상품 개발 [신규]	'23~	금융위
○ 펫보험 활성화방안 발표 [신규]	'23	금융위·농식품부
○ 펫보험 활성화 MoU 체결(금융위·농식품부) [신규]	'23	금융위·농식품부
○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조기 추진 및 게시 [신규]	'23~	농식품부
○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·분석, 결과 공개 및 홍보 [신규]	'23	농식품부
○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 [강화]	'23~	농식품부
○ 「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」 발표 [신규]	'23	농식품부
○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상담서비스 검증 [신규]	'23~	농식품부·과기부
○ 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거점 조성(2개소) [강화]	~'25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등 생산시설 구축 [신규]	'23~'25	농식품부
○ 동물용의료기기산업 거점(경산) 타당성 연구 [신규]	'23	농식품부
3 [펫서비스]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		
○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[신규]	'24	농식품부
○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 [신규]	'23	농식품부
○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등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[강화]	'24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추진 지자체 지원 등 [강화]	'23~	문체부
○ 동물 장례시설 입지 제한 규정 완화 및 장묘업 통합플랫폼 구축 [신규]	'23~'24	농식품부
○ 이동식 차량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실증 [강화]	'22~'24	농식품부
4 [펫테크]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		
○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반려동물 신기술산업 지정 [신규]	'24	농식품부
○ 맞춤형 컨설팅, 판로 확대 등 지원 [강화]	'23~	농식품부
○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활용 우수기술·기업 홍보 [강화]	'23~	농식품부
○ 스톡옵션(주식매수선택권) 제도 개선 [강화]	'23	중기부
○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 공유 [신규]	'23~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·공유 [강화]	'24~	과기부·농식품부

전략 2 : 성장 인프라 구축		
1 [혁신거점]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	-	농식품부
2 [벤처]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		
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 자펀드 결성 신규	'24	농식품부
○ 우수기술 보유 기업 대상 저리융자 자금지원 확대 신규	'24	농식품부
○ 해외펀드 등 매칭을 위한 우수경영체 발굴 등 지원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크라우드펀딩, 기술평가 지원 등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1:1 컨설팅, 사업설명회 등 투자유치 지원 강화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「펫 연관산업 투자설명회 개최」 신규	'23~	농식품부
3 [R&D] 「핵심 기술 + 신분야」 연구개발 확대		
○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 개발사업 강화	'22~26	농식품부
○ 펫테크, 펫헬스케어 분야 경쟁형 R&D 지원 신규	'23~28	농식품부
○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연구과제 발굴 신규	'23~	농식품부
전략 3 : 해외 수출산업화		
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		
○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 신규	-	농식품부
○ 대한민국식품대전 활용 K-펫푸드관 신설 강화	'23	농식품부
○ 아시아 수의사대회 등 박람회 참가 지원 신규	-	농식품부
○ 제품-홈페이지-카탈로그 현지화, 법률 자문 지원 신규	-	농식품부
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바우처 지원 신규	'23~	중기부·농식품부
○ 해외규격인증 지원 강화	'23~	중기부
○ GMP 인증제도 신설 및 컨설팅 지원 신규	'23~	농식품부
○ 동물용의약품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지원 강화	'23	농식품부
○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제품 개발 지원 강화	'23	농식품부
2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		
○ 관계부처 '수출지원협의체' 구성·운영 신규	'23~	농식품·중기부 등
○ 해외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신규	-	농식품부
○ 수출기업 리스트 제작 및 제공 신규	-	농식품부
○ 수출검역 조건 합의 노력 지속 및 후속절차 추진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FTA 활용 수출 진입장벽 해소 강화	'23~	농식품부
추진 체계		
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		
○ 가축용 사료와 펫푸드 간 제도적 구분 신규	'24~	농식품부
○ 「(가칭)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」 제정 추진 신규	'25~	농식품부
○ 既 시행 규제샌드 박스 제도화 가능 검토 강화	'23~	농식품부
2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·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		
○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동물등록의무 확대,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등록률 제고 신규	'23~	농식품부
○ 비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 검토 강화	'23~	농식품부
○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속 추진 강화	'18~	농식품부
○ 한국표준산업분류(11차) 개정 검토 신규	'24	통계청·농식품부
○ 한국표준직업분류(8차) 개정 검토 신규	'24	통계청·농식품부